

肖像권

글 전수영 기자



사진 1

사진을 찍으면서 자꾸만 회피하게 되는 것이 있다. 가급적 일반인의 표정을 프레임 안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왜 찍으시는데요?” 얼굴을 찡그리며 드러내는 미간 사이 주름의 두터움 만큼이나 그에 대한 죄의식이 마음을 짓누른다. 혹자는 사진기자가 그래도 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자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 초상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이유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본인의 허락 없이 찍힌 초상이 게재되거나 전시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무심코 발행한 보도사진으로 몇 번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소되고 배상금을 지불한 뒤로는 거의 트라우마가 됐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템플스테이를 취재할 때다. 새벽 예불을 모시는 스님을 찍고 싶었다. 이른 새벽 처소를 나와 대웅전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한 스님 앞에서 셔터를 눌렀다. 예의 그 두려운 말이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깨뜨렸다. “왜 찍으시는데요? 저는 찍지 마세요!” “아?, 네...” 뭐라 할 말도 잇은 채 카메라를 품 안으로 감추며 조용히 물러섰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찍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은 미안함이 앞서 마음과 행동이 움츠러든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된다. 초상권과는 무관할 것처럼 생각되는 해외에서조차 괜히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 뉴질랜드에서 만난 버스 기사 할머니

사진1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인근 와이헤케섬에서 만난 할머니 버스 기사
 사진3 2월 1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이 전세기에서 내리면서 기지개를 활짝 켜고 있다.
 김도훈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3

의 건강한 모습(사진1)에 크게 마음먹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다.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당신이 찍고 싶다면, 기꺼이...”라는 말에 스스로 녹았다. 하지만 허락을 구한 뒤 찍는 사진은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잃어버린다.

한겨레



선별진료소 의료진 “한명 들어오세요”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7일부터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정부가 검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우리의 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예의가 되었다. 도심과 관광지의 인파가 사라졌으며, 백화점과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필수적인 예방대책으로 꼽힌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 상품을 대형 할인점 매대나 약국에서 찾기도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사진의 취재원이 됐다. 모두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에 신경을 써야 할 취재자다.

특히 각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사진2)이나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사진3)들의 사진은 초상권에 유념해서 발행해야 할 사진들이다. 마스크로 일부 가려져 있지만, 나머지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초상권’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지도 모른다.

사적인 영역과 개인의 권리가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사진으로 담아내야 하는 사진기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